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10월 10일(수)에 배포되었습니다.

##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해법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3차 젠더와 입법 포럼 공동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10월 10일(수)


보도 날짜 : 2012년 10월 10일(수)

연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손충덕),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심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 한국젠더법학회(회장 김엘림)은 오는 10월 12일(금) 오후 2시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주제로 제3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후원한다.

## 제3차 젠더와 입법 포럼 개최

 <p>성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해법</p> <p>일시: 2012년 10월 12일(금) 오후 2:00~5:00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후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checkbox"/> 주제 <b>성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해법</b></li><li><input type="checkbox"/> 일시 2012년 10월 12일(금) 14:00 - 17:00</li><li><input type="checkbox"/>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li><li><input type="checkbox"/>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li></ul>
--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손충덕),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심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 한국젠더법학회(회장 김엘림)은 오는 10월 12일(금) 오후 2시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주제로 제3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후원한다.

□ 최금숙 원장은 “최근 일련의 성범죄들에 대한 예방책 마련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과가 미진한 실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성범죄 예방 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 <행사 개요>

□ 연일 계속되는 성범죄 사건 속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이번 포럼은 성범죄 예방 관련 형사정책적 측면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외국의 아동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포럼에서는 최영애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가 좌장을 맡고,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다운,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이인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외국의 아동성범죄 예방 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 김기현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현정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김재련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성폭력 범죄는 신상 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화학 약물투여 등 특별예방 효과측면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 수사 및 사법절차진행과정상에 있어서도 ① 피해자 사적 정보의 지나친 노출 ② 사과를 빌미로 한 가해자 측의 접근 및 그 과정의 명예훼손 등 2차 피해 발생이 나타나고 있어 구속수사 원칙, 엄한 실형 선고, 합목적적 교정행정의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리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접촉행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이고, 그와 같은 성 침해행위에 있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것 외에 별도의 폭행, 협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성폭력 범죄’라는 용어보다는 ‘성 침해 범죄’라는 용어사용을 제안하며, “합리적인 교정행정과 함께 출소한 자들과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의 멘토시스템을 도입해 감시가 아닌 인적 보호 및 지지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인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그동안 아동성범죄에 대한 개입은 사건 발생 후 피해아동의 치료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주로 관련 법의 제·개정,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성범죄자 사후관리 등에 치중되었음”을 지적하며, “해외 여러 국가들도 최근에서야 범부처적인, 범국민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차원의 예방정책을 시작해 나가는 과정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예방정책의 시사점과 앞으로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기초연구, 정책연구와 통계데이터 구축을 위해 노력

- ② 모든 아동에 대한 돌봄과 모니터링, 취약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
- ③ 온라인 성범죄의 예방에 더 많은 노력
- ④ 아동 관련 기관을 통한 성범죄 예방에 관심
- ⑤ 학교사회복지사 또는 그에 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사 등의 고용과 활용 확대
- ⑥ 친족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 고민

붙임 1. 프로그램

2. 발표자료

## 붙임 1. 프로그램

### <프로그램>

#### 프로그램

2:00~2:30

##### 개회식

사 회 :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개 회 사 : 손충덕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직무대리)  
환 영 사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엘림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축 사 : 김상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좌 장 : 최영애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2:30~2:50

**제1주제 :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 개선 방향**

발표 : 김재련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2:50~3:10

**제2주제 : 외국의 아동성범죄 예방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발표 : 이인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10~3:30

##### 휴식 및 다과회

3:30~5:00

##### 지정 토론 (가나다순)

- 김기현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교수)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유현정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 청중과의 토론

##### 폐회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